2012학년도 숭실대학교 논술 모의고사

논술 모의고사 문제지(경상계)

고등학교명		학년-반-번호	- -	성 명	

※ 주의사항

①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을 달지 마시오.
②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마시오.
③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하시오.
④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⑤ **연필 또는 흑색필기구**만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그 이외 색 필기구는 부정행위에 해당).

문제1 **제시문 (가)에 나타난 현대사회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경쟁이 갖는 가치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800자 ± 80자, 40점)**

(가-1)

현대의 삶에서 가장 심층적인 문제들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독립과 개성을 사회나 역사적 유산, 외적 문화 및 삶의 기술의 압도적인 힘들로부터 지켜내려는 요구에서 유래한다. 이는 원시 인간이 육신의 실존을 위해 치러야 했던 자연과의 투쟁에서의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중략)…

니체는 개인의 처절한 투쟁이, 사회주의는 일체의 경쟁의 제거가 개인이 완벽하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았던 것 같다. 어느 경우든 이 모든 것에는 동일한 근본 동기가 작동하고 있다. 다름 아닌 사회적 · 기술적 메커니즘 속에서 평준화되고 소모되는 데 대한 개인의 반항이 그것이다. …(중략)… 전형적인 대도시인의 인간관계와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보통이다.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결과 그들의 관계나 활동들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약속이나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정확을 기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는 수습하기 어려운 혼동 상태로 붕괴될 것이다. 만약 베를린에 있는 모든 시계 바늘이 단 한 시간 동안이라도 느닷없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베를린 전체의 경제적 관계와 그밖의 모든 관계는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외적인 요소로 보일지는 모르나, 대도시에서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다리거나 헛걸음질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를 의미하게 된다.

(가-2)

전통적 경제체제에서는 시간이 풍부했고 계절이 바뀌는 경우에만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해야 할 일들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생활은 사람들 고유의 페이스에 알맞게 조급하지 않은 속도로 전개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무리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참을성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경제체제는 시간을 상품화한다. 시간마저도 팔거나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시간은 수량화되었고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졌다.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졌고 사람들은 생활의 속도를 더욱 빨라지게 만드는 시간절약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중략)…

변해가는 라다크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놀랄 만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현대세계의 생활도구와 기계들이 그 자체로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새로운 생활은 전체적으로 시간을 빼앗아가버리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개발의 결과로 도시 지역에 사는 라다크 사람들은 활용 가능한 기술의 속도에 의해 경쟁을 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나)

There is good evidence that productivity in the workplace suffers as a result of competition. The research is even more compelling in classroom settings. David Johnson, a professor of social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and his colleagues reviewed all the studies they could find on the subject from 1924 to 1980. Sixty five of the studies found that children learn better when they work cooperatively as opposed to competitively, eight found the reverse, and thirty six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more complex the learning task, the worse children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fared.

Brandeis University psychologist Teresa Amabile was more interested in creativity. In a study, she asked children to make "silly collages." Some competed for prizes and some didn't. Seven artists then independently rated the kids' work. It turned out that those who were trying to win produced collages that were much less creative—less spontaneous, complex and varied—than the others.

<뒷면에 계속>

One after another, researchers across the country have concluded that children do not learn better when education is transformed into a competitive struggle. Why? First, competition often makes kids anxious and that interferes with concentration. Second, competition doesn't permit them to share their talents and resources as cooperation does, so they can't learn from one another. Finally, trying to be Number One distracts them from what they're supposed to be learning. It may seem paradoxical, but when a student concentrates on the reward (an A or a gold star or a trophy), she becomes less interested in what she's doing. The result: Performance declines.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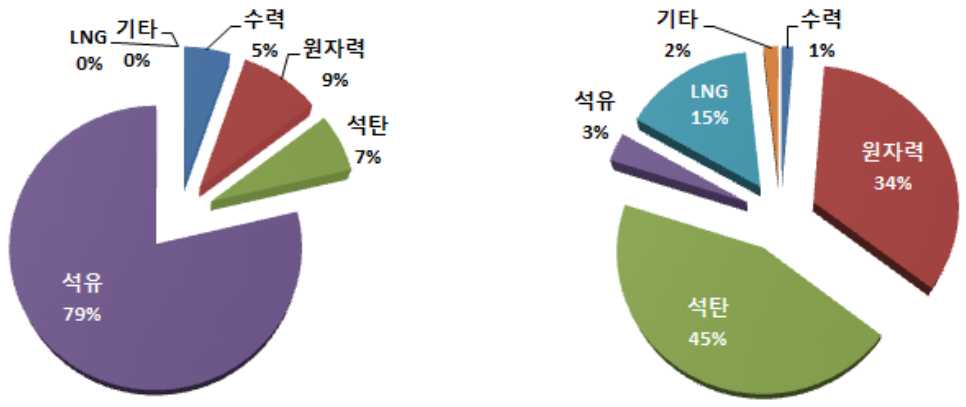
피렌체 공화국의 기수이자 용병 사령관이었던 피에르 소데르니는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도시의 옛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전에 도시를 떠났던 예술의 거장들을 불러들인다. 레오나르도가 1500년 피렌체로 돌아오자 시민들은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미켈란젤로는 자질구레한 주문만 받아 입이 잔득 부어 있다가, 인기를 만회할 기회를 찾았다.

피렌체 시장 소데리니의 예술가 고용 프로그램–고대 그리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유례없는 엄청난 규모였다. 소데리니가 품고 있던 또 한 가지 계략은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에게 경쟁을 붙여서 뛰어난 예술 작품을 생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시청사의 마조르 콘실리오 홀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는 벽에다 벽화를 그리는 일이었다. 원래는 서로의 재능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두 예술가였지만, 막상 대놓고 둘의 작품을 비교하게 된다고 하니 잔뜩 열이 올랐다. 나이가 위인 레오나르도로 말하자면 거장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대리석을 한 차례도 깎아 본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청동 조각이라면 세상에서 으뜸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했다. 한편, 미켈란젤로는 정치계의 실력자를 후원자로 두고 있는 데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최고의 솜씨를 자랑하는 거장이었다. 그가 피렌체로 돌아온 것은 일자리를 찾을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 주려는 욕심이 컸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경합할 작품은 프레스코 그림이었는데, 두 그림 모두 피렌체가 전쟁을 치르면서 거둔 승리를 다루어야 했다. 레오나르도는 1440년 피렌체와 밀라노 사이에 벌어졌던 앙기아리 전투를, 미켈란젤로는 1354년 피렌체와 피사 사이에 일어난 카시나 전투를 그리게 되었다.

1504년 라파엘로가 피렌체에 도착한다. 이로써 르네상스 전성기의 위대한 천재 셋이 마침내 한 도시에 모인 것이다. 라파엘로의 나이는 이제 스물 하나. 시청사 벽면 프레스코를 그리기 위해서 두 거장이 남긴 밑그림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소문은 벌써부터 듣고 있었다. 라파엘로는 신중하게 관찰하고 착실하게 배우는 성격이었다. 그는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보면서 공간 속에 등장인물을 짜 넣는 법과 색채를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법을 익혔다. 또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소묘만 보아도 기운이 넘쳤다. 소용돌이 구성이나 피라미드 구성의 기하학적 형식 속에서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라파엘로는 우르비노와 피렌체를 오가면서 많은 작품을 쏟아 낸다. 부유한 상인 아뇰로 도니의 초상화를 보면 레오나르도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2 **(1) <그림 1>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변화 원인을 제시된 <표 1>을 이용하여 추론하시오. (300자±30자, 20점)**

<그림 1>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추이



<1980년> (2009년)

기타 = 집단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연료전지 등)

<다음 면에 계속>

<표 1>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및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2009년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단위: 원/kWh)

석탄	석유	LNG	수력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60.3	145.6	153.1	109.4	104.4	35.6

발전원별 이산화탄소(CO_2) 배출계수 (단위: kg CO_2 /kWh)

석탄	석유	LNG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원자력
0.860	0.689	0.460	0.016	0.011	0.030	0.037	0.009

(2) <그림 1> · <표 1>, 그리고 제시문 (라) · (마)에 나타난 경제적 · 환경적 · 안전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700자±70자, 40점)

(라)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성장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전력설비 건설계획에 원전건설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 국산화율 제고를 정부 경영평가 항목으로 정하는 등 원자력 기술 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중략)… 그리고 관련 기업들 모두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원자력 발전 30년 만에 UAE 원전을 수주하면서 우리의 원전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원자력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세워진 것 같다.

하지만 지난 3월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고는 국내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중인 17개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선언한 독일정부,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중국,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신규 원자력 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까지 원자력 13기(약 1700만kW)를 반영한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대폭 증가되는 사회적 비용과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건설비 증가일 것이다. …(중략)…

우리나라 원전은 지리적으로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환태평양지진대로부터 약 600km 이상 떨어진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진이 많은 일본의 경우 5.0 규모의 지진이 매년 100회, 6.0 규모 이상의 지진이 매년 10회 이상인데 비해 우리는 5.0 규모는 10년에 1회, 6.0 규모 이상은 발생한 사례가 없다. 여하튼 원자력이 아무리 경제적이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자력 사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지켜본 우리는 위기가 기회라는 진리대로 원전의 안전 상태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부족한 분야는 엄격하게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사실대로 실상을 전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지지하는 원자력 산업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신 성장 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인터솔라(세계 최대 태양광 박람회) 2011을 계기로 논의되는 화두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가의 미래 에너지원을 어디서 찾느냐다. 곧 원자력이냐 아니냐다. 독일 · 스위스처럼 비원자력을 선택한 국가는 후대에게 원전 처리비용(예컨대, 핵폐기물 처리비용)을 떠넘기지 말고 지금부터 원전을 폐쇄하거나 사용하지 말자는 쪽이다. 반면 미국 · 프랑스 등은 현재 충분히 안전하고 저렴한 원전을 더 이용해야 한다는 쪽이다.

두 번째 화두는 보다 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발전 설비를 많이 설치하는 쪽이었지만 앞으로는 비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틀고 있다. …(중략)…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위상도 덩달아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워낙 발전 원가가 높아 정부 지원 없이는 사업을 꾸려가기 힘들 정도였지만 올 들어선 자립 가능 산업으로 성장중이다. 지속적인 기술 발전, 치열한 경쟁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기존 화력 발전 등에 근접하는 생산성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중략)… 물론 장밋빛 낙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독일에선 기존 발전회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전력 생산을 예측하기 어렵고 기존 설비를 제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매년 올라가는 전기 요금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끝>